



베로네제(Veronese, 1528-1588), 《예수님의 세례》, 16세기, 유채, 레덴토레성당, 베네치아, 이탈리아

입당송 마태 3,16-17 참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셨도다. 그때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도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독서 이사 42,1-4.6-7

〈여기에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종이 있다〉

화답송 시편 29(28),1ㄱ과 2,3ㄱㄷ과 4,3ㄴ과 9ㄴ-10(◎11ㄴ)

◎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평화로 강복하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가 물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크나큰 물 위에 계시도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여라. ◎
- 영광의 하느님께서 천둥 치시니, 그분의 궁전에서 모두 “영광이여!” 하고 외치도다. 주님께서 큰 물 위에 좌정하셨도다. 주님께서 영원하신 임금님으로 좌정하셨도다. ◎

제2독서 사도 10,34-38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도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마르 1,7-11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영성체송 요한 1,32,34 참조

요한은 말하였도다. 나는 보았노라.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노라.

성화해설

예수님께서서는 요르단 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으며 네 명의 천사들이 이 광경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늘에는 어린 천사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축하하며 가볍게 날고 있다. 예수님께서 양손으로 만든 십자가는 겸손의 표지이며 동시에 세례성사를 통하여 구원의 대열에 동참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님 세례 축일



구요비 읍 신부 | 가톨릭대 성신교정 영성지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30년 가까운 나자렛의 숨은 생활을 접으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공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날이다. 특별히 홀어머니 마리아를 뒤에 남겨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아니 사랑하는 외아들이 반대 받는 표징(루카 2,34)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겪을 일을 예감하며 아들을 떠나보내시는 성모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실까? 정들고 안정된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는 자녀의 굳은 결의(決意)와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고통 가운데서 한 인간은 독립된 인격체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聖父)의 품에서 나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오늘은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심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인들과 똑같아지심(히브 2,17; 4,15)을 말한다. 예수님의 이 결연(決然)한 출발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11절).

오늘 복음은 아버지(聖父)의 아들(聖子)에 대한 애타는 사랑을 ‘하늘이 갈라지며(찢어지며)’ 라고 표현한다.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는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리이다’ (63,13) 하고 탄원하였는데, 오늘 하늘이 찢어지고(갈라지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신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세례를 받으시는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 안에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聖靈)이 임재(臨在)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人性)으로 받으신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아들(聖子)로서 지니신 신적 생명인 신성(神性)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데 세례자 요한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8절) 라고 선포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성령께서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聖化)를 이렇게 노래하였다.

‘오! 사랑의 생생한 불꽃이여!
부드럽게 상처를 입히고

내 영혼의 아주 깊은 중심에!
이제 당신은 무심하지 않고,
만일 원하신다면 이제 끝내주소서!
달콤한 만남의 장막을 찢어주소서!’
-「사랑의 산불꽃」 첫째 노래-

하늘이 갈라짐(찢어짐)은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개천(開天), 또는 개벽(開闢)처럼 들린다. 장자(莊子)는 ‘開天者 德生(하늘의 본성을 여는 자는 덕을 만든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늘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사람들을 친구로 모은다’는 뜻과 같다고 한다. 예수님의 세례는 천지개벽(天地開闢)을 알리는 조짐과 같으니 이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2베드 3,13; 묵시 21,1)이 이미 시작되고, 이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다.

하느님에게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자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이 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라는 자의식과 확신을 갖기도 쉽지 않지만, ‘내가 과연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로서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볼 때 더욱더 그러하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했는데 바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서영남 베드로 | 민들레국수집

요 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명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꺾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는 주님의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러진 갈대처럼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기고 꺾져 가는 등불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 나누는 세례성사의 삶을 살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랜 노숙생활을 접고 민들레국수집에서 자원봉사자로 지내는 대성 씨의 소원은 “우리 손님들도 호강 좀 하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서는 밥과 국 그리고 반찬 세 가지면 잘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찬은 두 번 집어 먹으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맨밥을 먹거든요.” 부러진 갈대처럼, 꺾져 가는 심지처럼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것이 낫다고 무시당하는 우리 손님들의 소원은 밥이라도 맘껏 먹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드디어 우리 손님들이 반찬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차림판은 콩나물국, 배추김치, 깍두기, 시금치나물, 양배추찜, 짬장, 고추장아찌, 멸치볶음, 어리굴젓입니다. “어라, 반찬이 풀밭이네!” 부평역 근처에서 지내는 손님의 투정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이 반찬투정을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

다. 서둘러 생선조림을 만들어 상에 올렸습니다.

문 닫는 오후 다섯 시가 훌쩍 넘었는데 창권 씨가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옵니다. 급한 숨을 내쉬며 밥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종이상자를 한 아름 주워들고 진도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국수집 위치를 잊어버려서 헤매다가 늦었다고 합니다. 얼른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내일은 육개장을 끓여야겠습니다. 정육점에 가서 재호 씨에게 호주산으로 쇠고기 6Kg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만 원만 내라고 합니다. 그냥 드리고 싶은데 워낙 장사가 안돼서 반값만 받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오시는 손님이 없겠지 싶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우리 손님인 영환 씨가 어슬렁거리며 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밥 먹을 생각조차 못하고 인사만 꾸벅합니다. 담배 하나 권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머니에 돈 얼마나 있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오늘은 새벽에 일 나가려고 안전화 단단히 매고 갔는데 공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저녁은 그냥 물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반찬을 다시 차리기가 어려우니 간단하게 요기나 하세요.”

영환 씨가 고맙다면서 양념장에 비벼서 밥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참기름 듬뿍 넣어드렸습니다. 참 맛있게 식사합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2

인간의 생명은 언제나 선한 것이다

“왜 생명은 선한 것입니까? 인간은 비록 흠으로 빛어졌지만 이 세상에 하느님을 증언하는 존재이고,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표징이며, 그분 영광의 흔적입니다” <생명의 복음 34항>.

우리는 때때로 사람이 과연 선한 존재일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죽어 마땅하다고,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인간 생명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의 생명에도 본성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하느님의 표지가 새겨져” (생명의 복음 35항) 있습니다. 그 죄인의 회심을 위해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모든 인간 생명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 주신 선함을 믿어주고 용서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부여정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마더 테레사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넓은 인류애를 가지는 것보다 먼저 깊은 부부애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본당 신자들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기를 위해 부부관계 성장 프로그램 「부부여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부여정」은 결혼만족도검사(Korean-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 K-MSI)에 제시된 부부생활 만족의 척도들을 바탕으로 ‘남녀차이’, ‘성격차이’, ‘대화’, ‘부부갈등관리’, ‘여가시간’, ‘가정경제’, ‘성(性)’, ‘서로의 가족’, ‘자녀양육’, ‘혼인성사’ 등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과 배우자의 모습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각종 심리테스트, 결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각 주제별 이해를 돕기 위한 실제 상담 사례 소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청각 자료(삽화, 동영상) 등이 다채롭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강의식 형태가 아니라 참가 부부들의 적극적인 대화와 나눔이 적절히 조화된 워크숍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도 거부감 없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기 때문에 비신자 부부나 외곽 교우들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여정」은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쁜 습관을 긍정적인 좋은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물론 좋은 습관이 하루 이틀만에 딱딱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루 이틀 끊었다고 해서 완전히 끊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자신의 몸에 밴 습관을 고치려면 최소한 21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적어도 21일의 시간동안 적절한 조치와 함께 일관되게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의 뇌에 그에 합당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형성된 좋은 습관은 평생 동안 부부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치 자전거타는 법을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부여정」은 전체 주 1회, 5주 과정(28일)입니다. 부부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막상 해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동안도 벌써 많은 분들이 「부부여정」을 통해 부부관계를 성장시키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배우자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만 더 일찍 참석했더라면...”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그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소식

오늘(1월11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의 공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례주년으로 성탄 시기는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 ‘연중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

1월18일(일)~25일(일)은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간에 특별히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본당명 변경 안내

행정구역 관할 명칭의 변경에 따라 미아3동성당과 미아5동성당 본당명이 변경되었습니다(전화번호 변경 없음).

- 미아3동성당 → 미아동성당(전화: 983-2374)
- 미아5동성당 → 송천동성당(전화: 984-7277)

1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구역(반)장을 위한 미사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1월12일(월)	불광동성당(지구자체)	
1월13일(화)	신내동성당	
1월14일(수)	중곡동성당	
1월15일(목)	대방동성당	등촌1동성당
1월16일(금)	양천성당	

- 2009년 ‘명동(가톨릭회관)’ 월례연수는 없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1월13일 서상필 요아킴 신부(31세) 1942년, 용산
- 1월14일 전용선 요한 신부(53세) 1998년, 용인
- 1월17일 박우철 바오로 신부(72세) 1956년, 용산
- 1월18일 박원영 프란치스코 신부(38세) 1947년, 용산

‘수도 생활에 관한 교회 문헌’ 발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수도 생활에 관한 교회 문헌’을 발간했습니다(896쪽, 3만 원). / 문의: 460-750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

서울대교구 논현동성당 여사무원 모집

- 대상: PC(엑셀, 한글 등) 및 회계업무 가능한 세례받은 여교우 / 1월20일(화)까지 접수(제출서류 반환 안 됨)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문의: 548-2443 논현동성당(강남구 논현동 175번지)

서울대교구 종로성당 관리인·사무원 모집

- 관리인: 세례받은 남교우(숙식가능, 방화관리·기타 자격 중 소지자 우대) / 제출서류 반환 안 됨(면접은 개별 통보)
- 사무원: PC 및 회계업무 가능한 세례받은 여교우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문의: 765-6101 종로성당(1월16일까지 접수)

평화화랑: 천동욱 작품전 ‘영혼의 닻 - Hope’

평화화랑은 천동욱 작품전 ‘영혼의 닻-Hope’을 1월14일(수)~23일(금)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교구청 기관과 단체 알림

대학생 사회교리 강좌 1단계 1기 수강생 모집

- 대상: 대학생 / 주최: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 때: 2월2일~23일 매주(월) 오후 6시30분~9시(4주)
- 곳: 명동성당 범우관 702호(회비: 1만 원) / 문의: 773-1050

낙태치유프로그램 및 월례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

-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회비 없음)
- 때, 곳: 1월13일(화) 오후 1시30분~4시30분, 교구 사목센터 6층 소성당 / 문의: 727-2071(www.ihome.or.kr) 가정사목부

본당 수도자 연수

- 대상: 각 본당 수도자(회비 없음) / 접수: 1월13일(화)까지
- 때, 곳: 1월20일(화) 오후 2시~5시, 명동성당 문화관 2코스트홀
- 문의: 727-2062, 3 사목국 일반교육부

전·의경 대원 교리교육 봉사자 모집

- 대상: 전·의경들에 대한 교리와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 세례·견진받은 55세 이하의 교우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경찰사목위원회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 제2차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



사도 바오로 탄생 2000주년 바오로의 해를 맞아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과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바오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 뱃길로 떠나는 크루즈 성지순례를 마련합니다.

1차 크루즈 순례(2008년 11월5일~15일)에 이어 바오로의 해에 떠나는 제2차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는 열정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도들의 신앙과 삶을 따르는 배움의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너지고 나태한 우리 믿음을 일깨우는 신선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의 행로를 따라 뱃길로 떠나는 새롭고 뜻깊은 크루즈 성지순례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순례 일정: 2009년 3월18(19)일~28(29)일 / 10박11일
- 순례 여정: 그리스-터키(아테네-코린토-테살로니카-필리피- 이스탄불-페르가몬-에페소-밀레투스-파트모스)
- 모집 인원: 선착순 200명(객실별로 인원 한정)
- 순례 경비: 378~488만 원(객실에 따라 7가지)
- 문의: 2266-1591~2, 2270-2591~4 평화방송여행사

제10회 PBC 창작생활성가제

- 1차 예선: 악보(9부)및 음원(CD 또는 카세트 테이프)심사 (예선통과자 개별 통보)
- 2차 예선: 비공개 실연 심사
- 본선: 공개 심사 및 평화방송 TV 방영, 라디오 방송
- 본선 진출자 발표: 평화방송 인터넷 누리방 및 평화신문

▶일정

- 신청서 접수: 2월9일(월)~20일(금)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1차 예선: 2월27일(금)
- 2차 예선: 3월8일(일), 평화방송 본사 9층 평화홀
- 본선 진출자 피정: 4월25일(토)~26일(일), 의정부 한마음 청소년수련원
- 본선: 5월9일(토),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
- 신청서 교부: 평화방송 홈페이지 누리방(www.pbc.co.kr)
- 문의: 2270-2323
평화방송 생활성가 담당자

가톨릭 듣는 성경 '크레도' (신·구약)

· 가격: 17만9천 원(120시간) | 구입문의: 1688-0877 평화마켓



신·구약성경을 비롯해 예비신자들을 위한 목주 기도문, 주요 기도문이 수록된 가톨릭 듣는 성경이다. 별도의 도구없이 내장되어 있는 재생장치로 이어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다. 배경음악과 더불어 여러 명의 성우들이 녹음을 해 다른 음악 대신 성경말씀과 함께 단순작업이나 업무를 볼 수 있어 성경듣기 생활화가 가능하다.

의 성우들이 녹음을 해 다른 음악 대신 성경말씀과 함께 단순작업이나 업무를 볼 수 있어 성경듣기 생활화가 가능하다.

사해문서 1~4권

F. 마르티네즈 · E. 티그셀라아트 편역 | 강성열 옮김 | 내남 | 1·2권 576쪽, 3권 592쪽, 4권 568쪽 | 각 3만2천 원 | 구입문의: 031)955-4600



'사해문서'는 사해 서쪽 해안의 여러 동굴들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문서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1947년 '키르벳 쿵란'이라 부르는 지역의 한 동굴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이는 현존하는 히브리 성서 사본들보다 천 년 정도 앞선 것이다. 이 책은 쿵란 동굴들의 순서에 따라서 쿵란 제1동굴의 첫 번째 문서에서 마지막 제11동굴의 31번째 문서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문서들을 담았다.